홍익대에 ‘해태 야구’ 심은 장채근 감독

2011년 부임 후 전국대회 3회 우승
신인드래프트 2차 1R 2순위 배출

포수출신 지도자가 인기있는 이유?
홀로 전체를 보니까 유리한 것 같다

해태야구 비난, 그땐 속상했지만
다시 프로에 가도 해태 색깔 낼 것

이경호의 외야석

홍익대학교 장채근(52)감독에게 연락을 한건 최근 대학야구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홍익대 야구팀, 그리고 홍익대와 같은 붉은 색이 들어간 유니폼을 입었던 해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해태야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KBO리그를 완벽하게 지배했다. 2012년 선동열 감독이 KIA 사령탑을 맡아 해태의 DNA 부활을 선언하고 2013년 김응룡 감독이 한화 사령탑을 맡아 현장에 복귀하자 해태야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도 했다.

‘해태야구는 세밀함이 떨어졌다’,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 강했을 뿐 전략과 전술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김성근 감독은 2014년 한화 사령탑을 맡아 11월 가을 훈련을 지휘한 뒤 “(한화 선수들은) 고양 원더스 애들보다 약하다.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외야수들이 어깨가 약한 것은 던지는 방법을 몰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 수십 년 지기인 전임자 김응룡 감독을 정면에서 저격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해태야구는 구식이 됐다.

전성기 해태는 연고지 고교 출신 유망주 대부분을 스카우트할 수 있었던 당시 신인드래프트 룰을 통해 쉼 없이 특급 신인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같은 시기 삼성 역시 해태에 뒤지지 않는 특급 신인들이 꾸준히 있었다. 1차 지명 숫자가 줄어들고, 외국인선수 제도와 프리에이전트(FA)제도가 도입된 이후 팍팍했던 해태의 살림살이는 곧 치명적인 약점이 됐지만 그 전까지 해태는 엄격한 상하질서와 김응룡 감독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 하나의 팀으로 뭉쳤다. 최희섭 MBC스포츠 해설위원은 “KBO보다 메이저리그가 클럽하우스는 더 엄격하다. 신인들은 전용기에서 선배들에게 맥주 서빙도 한다. 엄격함은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배운다. 하나의 팀으로 녹아드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엄격함,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맹훈련.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고 이끌어가는 강렬한 카리스마 감독. KBO리그에서 사라진 해태야구는 홍익대학교에 살아있었다.

해태에서 6회 한국시리즈 우승, 한국시리즈 MVP, 3차례 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던 장채근 감독은 2011년 당시 최약체였던 홍익대 야구팀을 맡았다. 학교의 지원은 풍족했지만 스카우트부터 경쟁에서 뒤졌던 팀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이어졌다. 홍익대는 10일 ‘2016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전’에서 연세대를 꺾고 우승했다. 2014년에 이어 2번째 우승. 장 감독 취임 이후 홍익대는 최근 3년간 전국대회에서 3회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대학 야구 강자로 떠올랐다.

-놀라운 성장이다. 최약체 팀이 이제 전국대회 우승팀이 됐다.

“다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준 덕분이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프로에 지명을 못 받은 선수가 대학에 온다.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한 거다. 대학 4년은 프로선수가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꼭 프로에 가자!’는 목표로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했다.”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투수 김재영(한화)을 프로로 보냈다. 약속을 지켰다.

“감독이 된 후 직접 뽑은 선수들이 이제 4학년이다. 안정권에 들어선 느낌이다. 이제 더 많은 선수를 더 빠른 순위로 프로에 보내야 한다. 그게 대학야구 감독의 첫 번째 임무다. 빨리 전체 1번 선수도 배출하고 싶다.”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고등학교 선수들 사이에서도 인기 팀이 됐겠다.

“아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나뉜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보다 더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이미 프로에 갔다. 다 안다. 미팅도 하고 싶고 클럽도 가고 싶은 거. 그럴 나이다. 그러나 남들 놀 때 우리도 놀면 어떻게 프로에 가고 또 프로에 가서 이미 고교졸업 후 지명을 받은 그들과 어떻게 경쟁하겠나?’, 우리 대학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못 논다. 그게 싫어서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 머리가 제대로 된 놈들이 온다. 고등학교 때는 지명을 못 받았지만 꼭 프로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현역시절 당대 최고 투수 선동열과 배터리였다. 최근 프로에서도 포수 출신 지도자들이 각광받고 있다. 우승을 6번 함께한 포수 경력이 지도자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나.

“포수라는 포지션은 지도자로 매우 유리한 자리임에 틀림없다. 홀로 경기 전체를 본다. 투수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마음가짐이다. 우리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포수는 4학년이라도 1학년 투수가 항상 편안하게 느껴야한다는 점이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목표 속 열심히 훈련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좋은 팀이 될 수 있다.”

-전성기 해태가 추구했던 팀 색깔과 비슷한 것 같다.

“솔직히 해태야구가 비난 받았을 때는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다. 대학에서 선수들을 프로에 하나 둘 씩 보내고 어린 학생들의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큰 보람이다. 이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프로에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다면 예전 해태의 팀 색깔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선수시절 많은 것을 이뤘다. 지도자로도 큰 목표가 있을 것 같다.

“하하, 앞서 말했지만 프로에 선수 많이 보내는 거다. 야구는 어린이 팬들도 상상 속 감독이 될 수 있는 스포츠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금 팬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 좋은 선수 키우고 좋은 경기 하려면 더 공부하고 더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공부 많이 하겠다.” rush@donga.com

지안카를로 스탠턴(마이애미)이 12일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더비에서 호쾌한 스윙을 하고 있다. 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스탠턴, ML 올스타전 홈런더비 첫 우승

결승서 20홈런…2위는 프레이저

지안카를로 스탠턴(27·마이애미)이 생애 첫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더비 우승을 차지했다.

스탠턴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1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더비 결승에서 20홈런을 때려내며 토드 프레이저(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다.

스탠턴은 이날 1라운드, 준결승전, 결승전에서 무려 61홈런을 때려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61홈런은 2005년 바비 어브레유(당시 필라델피아)가 기록한 홈런더비 전체 라운드 최다홈런 기록(41개)을 20개나 뛰어넘는 숫자였다.

스탠턴은 1라운드에서 24홈런을 치며 7홈런을 친 로빈슨 카노(시애틀)를 가볍게 이겼고, 2라운드에서는 전반기 홈런왕(28홈런)인 마크 트럼보(볼티모어)를 3개 차이로(스탠턴 17홈런, 트럼보 14홈런) 누르고 승리했다. 결승에서는 20홈런을 치며 지난해 홈런더비 우승자 프레이저(13홈런)를 제치고 우승했다.

스탠턴은 2010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매년 20홈런 이상씩 때려내고 있는 거포다. 2012년에는 무릎 부상을 당했음에도 수술 후 한 달 만에 복귀해 123경기에서 37홈런을 기록하는 괴력을 발휘했고, 2014년에도 부상을 딛고 37홈런을 때려내는 투혼을 보여줬다. 마이애미는 스탠턴과 무려 13년간 3억2500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스탠턴은 올 시즌 저조했다. 5월에는 1할대까지 타율이 떨어졌지만 장타력은 여전했다. 그는 홈런더비에서도 최대 151m의 대형홈런을 쳐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선수 개인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는 2014년 처음으로 올스타전 홈런더비에 출전했지만 3라운드에서 탈락했고, 지난해는 왼손 골절로 출전 자체를 하지 못했다. 올해 올스타 베스트에도 뽑히지 못했다. 그 설움을 생애 첫 홈런더비 우승으로 털어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이보미 ‘리우 꿈’ 앗아간 식중독

한국서 가져온 반찬 먹다 배탈…US오픈 컷 탈락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의 꿈을 안고 멀리 미국 원정길에 올랐던 이보미(28·노부타그룹·사진). 그러나 꿈을 접고 빨리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보미는 9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마틴의 코르데바예 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 출전했지만, 이틀 동안 6오버파 150타를 치면서 컷 탈락했다.

이보미는 올해 일본에서 올해 12경기 연속 톱10 기록을 이어오는 등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동안 경기를 통해 이보미가 받아든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다. 아무리 코스가 까다롭고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보미의 실력으로 보기 힘들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이보미의 꿈을 앗아간 주범은 한국에서 가지고 간 ‘반찬’이었다. 일본에서 경기를 끝내고 귀국한 이보미와 어머니 이화자 씨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어머니 이 씨는 평소처럼 대회 기간 동안 먹을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다. 행여 음식이 상할까 아이스 팩을 이용해 꼼꼼하게 챙기기까지 했다. 미국에서 밥을 해먹을 계획으로 골프장 인근에 집도 빌렸다.

도착 후 이틀 동안은 별 일이 없었다. 그러다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집에서 가지고 간 반찬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매니저와 캐디, 트레이너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하지만 식사 뒤 이보미와 어머니는 배탈이 났다.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심지어 다음날에는 몸에 열꽃이 필 정도로 심각해졌다. 다행히 트레이너가 상비약을 준비해 간 덕분에 빨리 대처했다.

겨우 몸을 추스른 이보미는 경기에 나갔다. 그러나 컨디션이 엉망이었다. 처음에는 견딜 만했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배가 아팠고 정신도 혼미해져 실력 발휘는커녕 제대로 스윙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 어렵게 경기를 끝낸 이보미는 첫날 4오버파를 치며 컷 탈락 위기에 몰렸다.

다음날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보미는 2∼3언더파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은 바람이 문제였다. 오후 들어서 강풍이 몰아쳐 타수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 됐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오버파를 쳤다. 2타를 더 잃은 이보미는 결국 아쉬움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보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이는 어머니다. 자신의 실수로 딸의 올림픽 출전 꿈이 좌절된 것 같아 미안함뿐이다. 속이 상한 이 씨는 “다 내 잘못이다. 열무김치랑 조개젓 등 몇 가지 밑반찬을 해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다. 조금만 더 주의깊게 살펴봤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귀국 후 휴식을 취한 이보미는 14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약 2년 9개월 만에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한다. 이보미는 “올림픽 출전의 꿈이 무산돼 아쉽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좋은 컨디션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 드리겠다”고 아쉬움을 털어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대세 박성현, 상금 10억이 보인다

US오픈 3위…국내 대회당 7000만원 번 셈

한국여자골프의 ‘대세’로 떠오른 박성현(23·넵스·사진)이 국내를 넘어 미국과 일본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어마어마한 상금까지 챙기고 있다.

2016년 박성현의 활약은 눈부시다. KLPGA 투어에서만 4승을 따내면서 벌써 7억591만원의 상금을 벌었다. 이번 시즌 10개 대회에 출전한 박성현은 대회당 약 7079만원씩을 번 셈이다.

박성현은 미국에서도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을 놓쳤지만, 공동 3위를 기록하면서 21만3638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앞서 박성현은 3월과 4월 파운더스컵(공동 13위·2만1084달러), 기아클래식(공동 4위·7만8055달러), ANA인스퍼레이션(공동 6위·7만2004달러)에서만 17만1143달러를 벌었다. 네 경기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38만4781달러(약 4억4200만원)다. LPGA 투어 상금랭킹 2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대회 당 1억원이 넘는 알찬 수입을 올렸다.

US여자오픈을 끝내고 곧바로 귀국한 박성현은 쉴 틈도 없이 14일부터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에서 개막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한화금융클래식과 함께 가장 상금이 많이 걸려 있다. 총상금 12억원에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 우승자에겐 보너스로 1억원 상당의 자동차도 준다.

박성현의 우승에 관심이 쏠리는 건, 이 대회에 정상에 오를 경우 상반기 상금 10억원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KLPGA 투어에선 김효주(2014년 12억897만8590원)를 제외하고 연간 상금 10억원 고지에 오른 선수는 없다. 따라서 박성현이 우승할 경우 상금 10억원 돌파는 물론 김효주의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까지 넘볼 수 있게 된다.

박성현은 작년 이 대회에서 공동 10위에 올랐다. 올해 더 탄탄한 실력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관건은 시차적응 등 컨디션 회복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일본여자골프(JLPGA) 투어 상금랭킹 1위 이보미(28)를 비롯해, 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백규정(21·CJ)이 출전해 국내파들과 샷 대결을 벌인다.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에서 데뷔 첫 승을 신고한 루키 이소영(19·롯데)은 2개 대회 연속 우승, 디펜딩 챔피언 조윤지(25·NH투자증권)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주영로 기자